

지역 소식

창원시연합회, 농업인회관 준공식 가져

창원시는 도계동 택지조성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규모로 건립한 농업인회관의 준공식과 농업경영인 창원시연합회장 이취임식을 2월 8일 오전 11시 박완수 시장과 농업경영인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대강당, 교육장 등을 확보해 농업발전 방향과 새로운 작목선택, 사양 재배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토론의 장으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구룡사, 농촌 살리기 발대 선포 대법회

“사찰 경내서 우리 농산물 판매”

원주지역을 대표하는 고찰 치악산 구룡사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 살리기를 위한 이색 행사 열렸다. 지난 2월4일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앞뜰에서 열린 ‘우리농촌 살리기 발대 선포 대법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빈 그릇 운동을 벌일 것과 외국산 농산물 사용 안하기, 농촌일손돕기 등 실천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행 주지를 비롯 신기영 한농연원주시연합회장과 많은 농민단체장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경내에 우리농산물 판매대를 설치,사찰에서 직접 원주·횡성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어 농산물 팔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농업정책연구소 ‘한농연 2006 교육평가’ 간담회

“단계별 심화교육 필요”

한농연 부설 농업정책연구소는 지난 22일 한농연회관에서 ‘한농연 2006 교육 평가 및 발전모색 간담회’를 갖고 향후 농업경영인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익규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해 나승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진길부 도드람양돈 조합 조합장, 조현선 고삼농협 조합장, 오종권 한농연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은 지난해 진행된 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이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는 평이다. 하지만 사업 대상자 선정이 늦게 이뤄짐에 따라 출하 및 생산 시기에 교육 일정이 잡히는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박익규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강사섭외나 교육내용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던 사람 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해보는 등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충남도연합회 회장단 이완구 도지사 예방... 충남도 농정방향 의견 교환

장석철 충남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4일 이완구충남도지사를 예방, 신년인사와 함께 충남도 농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지사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올 한해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도 농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장석철 충남도회장은 “우리농업을 지켜내겠다는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피력에 희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자립강화를 통한 농업인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연합회 임원은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과 유상호 농협충남지역본부장, 김용억 농촌공사충남본부장을 예방했다.

충북도연합회, 정우택 지사와 간담회

박철용 충북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는 11일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철용 충북도연합회장은 정우택 충북도 지사에게 “개방농정에 따른 피해와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농업지원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정 지사는 이에 대해 “농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귀포연합회 남제주군연합회 통합 ‘새로운 출발’

한농연 서귀포시연합회와 남제주군연합회가 통합한 서귀포시연합회 창립총회가 15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진 복지 서귀포시 실현 및 건전한 농촌사회 구현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초대 회장에 선출된 김승훈 전 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은 “외국 농산물 수입 등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전 회원의 단합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전북도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김선태)는 지난달 28일 한농연 창립20주년 기념 행사를 완주군 삼례읍 소재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선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경영인의 전신인 농어민후계자전북연합회가 창립된지 만 20살로 성년이 됐다”며 “역대 선배들이 청춘을 받쳐 쌓아온 금자탑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배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연합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회장 및 도임원, 시·군 회장 등 부부동반으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떡자르기에 이어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체육행사를 실시, 화합과 단합의 장을 마련했다.

정선 농업인한마음 풍년 기원제... 민속놀이 즐기며 우의 다져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선지역 농업을 이끌어 가는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졌다.

정선군 농업인 한마음 풍년 기원제가 지난 3월 2일 오전 정선군 농업인회관에서 정덕교 정선군연합회장, 최승준 정선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농협지역본부장 등 주요내빈과 9개 읍·면 농업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한농연·한여농정선군연합회 주최로 대보름을 맞아 농업발전과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축제에서는 풍년기원제에 이어 윷놀이, 제기 차기 등 고유의 한마당 민속놀이를 즐기며 우의를 도모했다.

이날 회원들은 지역 농업을 지키고, 우수 농특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 등을 다짐하는 동시에 지역의 일꾼으로서 '2014 동계올림픽 유치' 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정덕교 정선군연합회장은 "농업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풍년기원제와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한마당 축제를 마련했다" 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말했다.

한농연완주군연합회, 소년소녀가장에게 쌀 전달

한농연완주군연합회(회장 최창현)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 3월 2일 완주군내 소년소녀가장에게 찹쌀을 전달,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또한 완주군연합회는 이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년소녀가장 200명에게 4kg짜리 찹쌀 1포씩을 나누어줬다.

특히 이날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된 쌀은 최창현 완주군연합회장은 물론 이민영 전 회장, 김복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병선 지성RPC 사장 등 지역 유지와 임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를 더해줬다.

최창현 회장은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회원들과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군연합회 '한미FTA저지 기원' 달집태우기 행사

한농연함양군연합회(회장 문광옥)는 지난 3월 4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천사령 함양군수를 비롯한 함양군민 수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풍년기원제 및 달집태우기 행사를 가졌다. 벌써 3년째 진행되어온 이 행사는 올해도 함양군회원들이 함께 1톤 트럭 54대 분량의 소나무와 대나무를 쌓아올려 거대한 달집과 별집을 만들고 '한·미FTA 저지'와 '민족농업 사수' '농자천하지대본' 만장과 함께 세워진 거대한 달집을 태우며 풍년기원제를 올렸다. 이날 촉촉한 봄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올 한해 농사의 풍년과 한미FTA 저지를 기원하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